

2025 문화계 결산 &lt;2&gt;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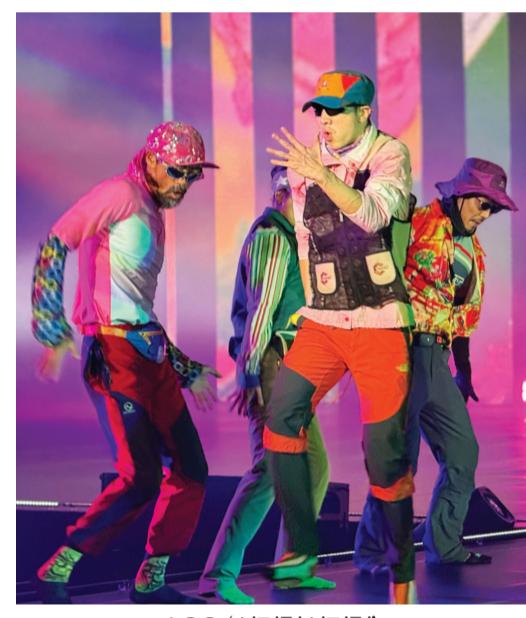
# 소프라노 조수미 특별 무대…호남예술제 70주년 빛났다

올해 광주·전남 공연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해 온 '호남예술제'의 70주년이다. 1956년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했던 시절에 출범한 호남예술제는 음악·미술·무용·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에게 첫 무대이자 성장의 발판이 됐다.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 고(故) 김남윤을 비롯해 황성경 화백, 소프라노 강숙자, 피아니스트 문지영,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발레리나 김선희 전 한예종 교수 등이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70년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무대도 마련됐다. 지난 9월 19일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가 광주예술 의전당에서 '광주, 세계의 빛이 되길' 주제로 공연을 펼친 것이다.

조수미는 도니체티 오페라 '연대의 빛' 중 '모두가 알아요', 윤학중 가곡 '마중' 등 장르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특유의 맑고 단단한 음색으로



ACC '시리렁시리렁'

국경·장르 아우른 'X뮤직페스티벌'  
ACC 개관 10주년 다양한 공연·축제  
광주시향 400회 연주회 '혁명가들'  
AI 접목 음원·국악 창작극 무대도

큰 감동을 전했다. 최영선 지휘자의 55인조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받았고, 테너 장주훈·해금 연주자 이세미가 협연해 무대의 풍성함을 더했다.

아시아 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자리해 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ACC는 이를 기념한 다채로운 공연·축제 등을 선보였다.

그 첫 번째 작품인 '두 개의 눈'(3월 21~22일)은 프로젝트 그룹 '무토(MUTO)'와 창작 집단 '임과손 스튜디오'가 협업해 '심정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판소리에 전자음악과 미디어아트, 무대장치를 결합한 ACC의 판소리 연작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틱을 주제로 하는 기준 '심정가' 대신 심학규의 여정을 중심으로 든 '로드 무비' 형식으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띄었다.

9월 23~25일에는 '흥보가'를 재구성한 신작 '제비노정기: 시리렁 시리렁'이 공개됐다. '범 내려온다'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날치와 앰비규어스탠스컴퍼니가 다시 호흡을 맞추며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판소리의 서사를 과감히 해체하고 음악·춤·무대기술을 결합한 콘서트 형식의 공연으로 전통예술의 확장성을 보여줬다.

올해 16회를 맞은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은 'X뮤직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방향성을 선언했다. 단순히 세계의 음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지난 9월 열린 갈라 콘서트 '광주, 세계의 빛이 되길'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축제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변화였다.

기아금을 기반으로 전자음악·현대음악·즉흥 연주를 넘나들며 독자적인 음악 언어를 구축해 온 김도연이 음악감독을 맡아 개막 공연 'X의 제전'을 선보였고, 밴드 터치드와 싱어송라이터 오준·카더 가든의 무대 등이 이어지며 여름밤 공연장의 분위기를 낭만적으로 채웠다.

광주예술의전당은 다채로운 기획공연으로 지역민들의 밤걸음을 모았다. 그중에서도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한 '11시 음악산책·명작시리즈'가 주목을 받았다.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인 안인모가 진행을 맡아 문학·음악·그림을 한데 엮는 형식으로 꾸려졌으며, 상·하반기에 걸쳐 '노인과 바다', '위대

한 개츠비', '안나 카레니나' 등 명작을 주제로 총 8회 무대가 열렸다. 라틴·재즈·클래식 음악과 명화를 활용한 인문학적 해석이 더해져 "공연을 통해 책을 다시 읽고 싶어졌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1976년 창단 이후 꾸준히 무대를 지켜온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올해 제400회 정기연주회를 열며 중요한 이정표를 맞았다. '혁명가들'을 주제로 한 11월 14일 공연은 시대와 맞선 예술가들의 정신을 조명했다. 이병우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협연해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을 들려줬다. 체제 속에서도 예술로 발언하고 생존했던 작곡가들의 메시지를 통해 광주의 정신을 다시 비쳤다.

AI와 예술의 결합도 올해 공연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올랐다. 광주지방보훈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1일 'WE·詩·광복을 노래하다'를 선보였는데,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협업해 제작한 AI 창작 음원이 무대에 올랐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악 세계로 주목받는 '악단광칠'이 녹음에 참여해 기술과 예술의 만남에 힘을 더했다.

11월 9일에는 내부소리민족예술단이 'AI와 함께하는 국악 관현악극·춘향전Ⅱ'를 선보였다. 전통창극에 AI 작곡 기술을 접목한 AI 음악 창작극으로, AI가 생성한 선율은 춘향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데 활용됐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고대 역사·문화 체험…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조성

마한문화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  
디지털복합문화관 새롭게 조성

영산강 유역은 고대 마한 문화가 천연하게 풀을 피웠던 지역이다. 독넓고 고분으로 대표되는 마한문화는 당대 정치 체제는 물론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마한문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관 및 어린이박물관이 재탄생해 눈길을 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은 고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복합문화관 및 어린이박물관'을 새롭게 조성했다.

김상태 관장은 "영산강 유역의 미한 문화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합한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특징"이라며 "어린이들이 지역의 고대 문화를 다채롭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성 사업에는 총 2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어린이박물관은 684.8㎡(약 207평) 규모로 현재 '안녕 마한, 우리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조성 중이다.

각각의 공간은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춰 구현된 것이 특징이다. '영산강과 마한 마을'은 물고기와 잡으며 고대인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마한의 공



새롭게 재탄생한 국립나주박물관의 '디지털복합문화관 및 어린이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방'은 옥 장신구, 대형 금동관 만들기 등을 매개로 전통 체험이 가능하다.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의 상징인 '독널'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독널과 고분'은 토키를 쌓아 장식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보이는 독널 수장고'는 문화유산의 전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대형 독널들이 보관된 수장고 내부를 관람 동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촌리 고분군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카페도 힐링의 공간이다. 나주 농협의 고즈넉한 풍경과 고분군의 신비를 감상하며 옛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한편 나주박물관은 준공 이후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보완을 통해 3월 초 정식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성료

올 한 해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전남 지역에 예술 단체가 직접 찾아갔다. 문화소외지역 주민들과 만난 공연은 일상 가끼이에서 예술을 나누며 문화 접근성의 폭을 넓혔다.

전남문화재단은 전남도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남 공연장 협력예술단체 찾아가는 공연·문화나눔, 마음이음 시즌2'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가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며 공공문화서비스의 접근성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연은 지난 1년여간 전남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강당, 지역 행사 공간 등에서 이어졌다. 구례에서는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국악

과 연극, 음악 공연이 펼쳐졌고, 진도 조도에서는 섬 지역 주민과 노인대학 수강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즐겼다. 화순에서는 하루에 여러 단체가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연달아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여수에서는 전남 문예창작 성과공유회와 연계한 축하공연이 마련돼 예술인과 관계자들이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공연에는 총 4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였다.

김은영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천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노인대 조도분교에서 지난 15일 열린 '문화나눔, 마음이음' 공연 모습.

한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올해 모두 10개 단체가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만발의 슬리퍼’



‘수염난 병아리’

## 사소한 순간들, 유머러스한 이미지로

'레드기저 그림 개인전' 내년 2월 19일까지 드영미술관

레드기저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으로 작품 활동을 펼쳐온 이의선 작가. 그의 작품은 사소한 감정을 포착해 이미지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벼우면서도 유머러스한 표현이지만 배경에는 감정의 결을 세세하게 포획한 작가의 예술적 역량이 드리워져 있다.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에서 내년 2월 19일까지 펼쳐지는 제5회 '레드기저 그림 개인전'.

그의 작품은 동화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환기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소한 순간을 주목해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이미지로 변환한다.

만화 속 캐릭터를 옮겨온 듯 한 '만발의 슬리퍼'는 발가락이 웃는 얼굴로 형상화돼 있는 보는 이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슬리퍼가 주인공인지 10개의 발가락이 주인공인지 알 수 없지만 보는 이에 따라 두 개가 모두 주인공으로 조망된다.

'계으른 자'는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헤엄을 치는 남자를 묘사한 작품이다. 표제는 '계르른 자' 이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자'로 명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느낌을 그림이 환기하기 때문이다.

작가에게는 특별한 순간이나 평범한 순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동일한 무게와 감성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시각적 언어로 치환함으로써 과도한 감정에 몰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변기숙 학예연구실장은 "레드기저의 그림은 무거움과 가벼움이 종이 한장 차이와 다르지 않다"며 "일상의 순간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뜨겁지 않게 바라보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작가만이 가진 장점인 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레드기저는 상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비주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를 졸업했으며 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비엔날레본부 전시기획팀 재직 중이다.

오픈갤러리 제14차 공모 당선 작가이며 2021~현재까지 매년 1회씩 개인전을 펼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